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본당소식

◆ 콜럼버스 교구 BAA 담당자 초청 설명회

- 일시: 오늘 주일 미사 중
- 감사: Lena Richards

◆ 콜럼버스 교구 Parish Self-Study 안내

- 7월 17일 사제관에서 Self-Study 전례, 교육 부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재정 부문 모임은 다음 주 주보에 일정과 참여자 명단을 공지하겠습니다.

◆ 다음주 미사 후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 빈첸시오회 무료급식 봉사

- 매월 둘째 수요일마다 우리 공동체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

◆ 친교 준비 봉사자

- 7월 20일: 김상욱
- 7월 27일: 김한식

◆ 7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제준 구역

-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서는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3,1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친교시간 이후 각자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16주일 July 20, 2008



<가라지의 비유>

12세기, 유리화, 영국 켄터베리 대성당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72.00
교 무 금	\$1,940.00

- 교 무 금: 권혁제 김도형 하주영 이경환 사윤진 박석현 최준표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지혜서 12,13,16-19

“하느님께서서는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8,26-27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께서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3,24-43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160단	2명	1,905단	16명
이호영	단	명	8,538단	7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50단	1명	6,645단	70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10단	3명	22204-7/13/08 (230주)	

☞ 총누계: 198,098단 12,680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7월 20일	7월 27일
전례준비	서인원	박시영
해설자	고상식	김오경
독서/봉헌	김영옥 김수미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26 ♫ 봉헌: 214
♫ 성체: 32 171 ♫ 파견: 432

내 맘 안에 풀 뽑기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 / 곧벤두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강화성의 수도원 마당에 나무들과 꽃들, 상추, 파, 고추, 토마토, 오이, 옥수수, 고구마를 심어 놓은 텃밭이 있는데 자주 풀을 뽑아 주었다. 비닐을 깔지 않고 농약을 쓰지 않았기에 더욱 풀들이 자라고 메뚜기들도 있었다. 거름을 주어 가꾸는 푸성귀보다 잡풀들이 역세게 줄기차게 자란다. 뽑아도 새로 돋아나고 줄기를 자르면 곧 옆가지를 치고, 밭이나 길바닥에 납작 깔릴 정도로 밟혀도 끈질기게 살아난다.

사람들 가운데 역세고 끈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초인생이라고 하던가. 잡풀은 재배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작물에 해를 끼치는 식물을 뜻한다. 잡풀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농작물 수확량이 3 할에서 8 할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농사란 ‘잡풀과 싸움’이라고 할 만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부담을 준다. 그래서 잡풀을 죽이는 화학약품들도 있지만 그것은 풀만 죽이는 게 아니라 땅과 벌레, 물도 죽인다. 오늘 농민주일을 맞아 먹을거리를 길러 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땅에 고마움을 전한다.

가라지의 비유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교회에 매우 잘 어울리는 비유이다. 성급한 이들은 나쁜 죄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착한 사람과 죄인들을 가리는 일은 하느님의 종말심판 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죄인을 가려 내어 없앤다고 하다가 착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과 죄인들에 대한 판단과 상벌은 하느님의 종말심판에 맡겨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 삶에서 원수가 누구일까?

직장에 출근했는데 지각이다 - 지난 밤에 술이 원수지 / 남대문이 불에 났다 - 돈이 원수지 / 자식이 사고내고 교도소에 있다 - 자식이 원수지 / 영감이, 딸이, 공부, 나라, 동무, 가족 ... 세상에는 원수가 참 많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원수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시기, 질투로 뒤틀어진 관계를 일그러진 사랑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 아예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잘 지내야 하겠다. 교회 안에서 더욱 -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마태 5,44). 니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약하고 비겁한 자들의 것이고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혹평했다. 그것이 맞는 말일까?

미움을 미움으로 보복하는 것은 미움을 더욱 크게 한다. 미움과 증오는 인간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인격을 일그러지게 만든다. 미움을 없애는 방법은 사랑뿐이다. 그리고 사랑만이 원수를 벗으로 만들 수 있다. 링컨은 자신을 가장 비난한 스캔톤을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링컨의 장례 때에 “그는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세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산다”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밀밭에 가라지는 주님께 말기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잡풀은 뽑아야 하겠지!